

국내 최초 LCNG 충전소 가동

환경부, 천연가스버스 연료 공급용 ... 1일 100대 충전 가능

천연가스버스 등에 사용되는 LCNG(액화·압축천연가스) 충전소가 국내에도 설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1월28일 대전시 동구 낭월 공영차고지에 LCNG 충전소를 설치해 천연가스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 충전을 시작했다.

LCNG 충전소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되지 않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켜 CNG(압축천연가스)로 공급하거나 LNG 상태 그대로 충전할 수 있는 겸용시설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이루어져 운영중이나 국내에서 가동되기는 처음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LCNG 충전소는 LNG 탱크 1개소(56m³), 기화기 2대, 충전기 4대를 설치하는 데 총 23억원이 투입됐다.

설치된 충전소는 하루 천연가스버스 100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2006년까지 충전능력이 200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29>